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서연미 선임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김은란 선임연구위원
민성희 연구위원
이효란 전문연구위원

2025. 11. 10.
No. 1037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명수
www.krihs.re.kr

이 브리프는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든 생분해성 펄프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주요 내용

- ①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서비스 소비자로서 지역 교육기관의 재정에 기여하고, 생활인구로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며, 잠재적 노동인력으로 역할 가능
- ②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단계 이후 계속 체류를 지원하는 정책추진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잠재적 노동인력'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역할이 점차 강조
- ③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분석 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57.9%로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하며 유학생의 출신국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공간적으로 차별적 양상
- ④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대학이 소재한 지역(광역) 내 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체류할 의사가 높으며(77.9%), 유학생 국내 취업지원을 위해 인턴십 기회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 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외국인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느낄수록 대학 졸업 후 한국 및 유학한 지역에 취업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역 및 지역주민과 다양하게 소통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방안 필요

정책방안

- ① 외국인 유학생 유형화를 통한 졸업 후 체류 경로 다양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산학프로그램 확대, 외국인 유학생 창업 지원을 통해 졸업 후 취·창업 연결 사다리 강화
- ② 외국인 유학생 지역이해도,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통해 유학생의 지역 내 정착 지원
- ③ 관련 통계연계 및 성과조사 시스템 구축, 지역일자리 수급계획 수립을 통한 취업 지원 정책 추진, 유학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정립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 패키지화

01. 지역발전 동력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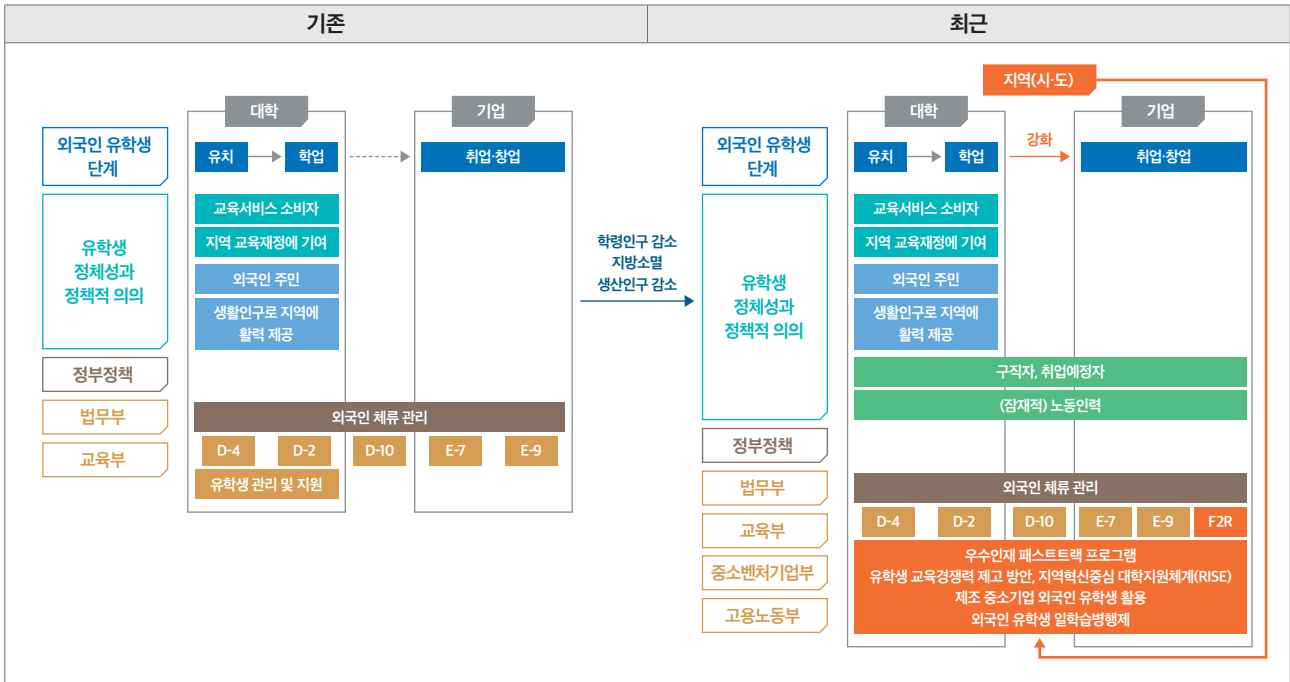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의 특징 및 지역정책적 의의

- (다층적 정체성) 이주자이자 학생이지만 관광객, 노동자, 국민의 배우자 등으로 변화 가능성 다양
- (사전에 통합된 이민자) 유학한 국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학위 등을 통해 자격을 쉽게 판별 가능
- 상대적으로 젊고 유학국의 언어습득 수준이 높음
- (지역정책적 의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교육기관의 재정에 기여하고, 생활인구로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며, 잠재적 노동인력으로 역할
- (교육서비스 소비자)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입학 정원 및 등록금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재정 확보를 도모
 - (외국인 주민) 등록금 이외 구매, 여행 등을 위한 부가적 지출을 할 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방문을 견인함으로써 대학 소재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
 - (구직자·취업예정자·취업자) 교육을 마친 후 유학국가에서 취업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산업인재를 확보하는 중요한 공급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정책동향

- (중앙정부)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와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주도하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도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 인재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광역형 비자시범사업 추진
 - 교육부는 지역수요 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계획(Study Korea 300K)을 발표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사업)를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양성정책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과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제를 추진
- (광역 지방자치단체)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지원 계획 수립, 지원 조례 제정, 조직 운영, 대학과 협력 사업 추진
- (외국인 지원 계획 수립)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치 종합계획
 -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 (유학생 관련 부서 운영) 유치 및 학업 단계 유학생은 대학정책·산학협력·지방소멸·인구정책 부서, 체류단계 유학생은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책 부서, 취업단계 유학생은 일자리·경제·미래정책 부서에서 주로 담당
 - (대학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사업 추진) 유치 및 유입단계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 유입, 적응 및 관리단계에서는 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업단계에서는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특징) 지방소멸 대응 관점에서 유학생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정책에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역할 부상
- 학업단계 이후 취·창업을 통한 계속 체류를 지원하는 정책추진으로 '잠재적 노동인력'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의 역할이 점차 중요

그림 1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목표와 지역정책적 의의 변화



02.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 경향

인구 관련 다른 지표인 청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대학재적학생, 등록외국인 수 등과 견주어 볼 때 외국인 유학생은 더욱 높은 수도권 집중도를 보임

- 수도권 외국인 유학생 비중 57.9%, 등록외국인 인구 비중 56.3%, 청년인구 비중 55.8%, 생산가능인구 비중 52.3%, 대학재적학생 비중 48.8%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광역시, 비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분포

COVID-19 이후 외국인 유학생 수도권 집중이 강화

- 유학생 수도권 집중도는 2019년에 54.3%였으나, 2023년에는 59.9%로 증가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 차별화

중국, 미국, 일본, 몽골 국적 유학생은 수도권에 체류하는 비중이 높고, 베트남 및 중앙아시아 5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은 비수도권에 더 많이 집중

-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국적은 미국(88.7%), 일본(70.0%), 중국(67.5%), 몽골(55.3%)
- 비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국적은 중앙아시아 5개국(62.2%), 베트남(59.7%)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수준과 전공에 따른 유형 구분

외국인 유학생이 10명을 초과하는 8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수준과 전공에 따라 지역 유형을 분석한 결과, 비학위 및 전문학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다수를 차지

표 1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준과 전공에 따른 지역 구분

학위수준	전공	인구감소지역	비인구감소지역
비학위/전문학사 (38)		횡성군, 보령시, 논산시, 제천시, 영동군, 정읍시, 안동시, 거창군 (8)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시흥시, 춘천시, 강릉시, 천안시, 홍성군, 당진시, 청주시, 전주시, 군산시, 여주시, 순천시, 목포시, 칠곡군, 김천시,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시, 구미시 (30)
학사	인문사회 (23)	고성군, 공주시, 금산군, 태안군, 영주시 (5)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성남시, 의정부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원주시, 충주시, 음성군, 아산시, 완주군, 무안군, 경주시, 경산시 (18)
	비인문사회 (6)	삼척시, 예산군, 임실군, 밀양시 (4)	안산시, 안성시 (2)
석박사	인문사회 (12)	가평군, 괴산군, 영암군 (3)	동두천시, 고양시, 용인시, 포천시, 양평군, 진천군, 익산시, 나주시, 진주시 (9)
	비인문사회 (5)	상주시 (1)	울산광역시, 군포시, 서산시, 포항시 (4)

지역인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남

표 2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인구유형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

(단위: %)

구분	대학 재학생 수 대비 유학생 비율	청년인구 대비 유학생 비율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유학생 비율
수도권	7.09	1.48	0.56
비수도권	4.91	1.35	0.45
광역시	5.49	1.47	0.51
비인구감소지역	4.48	1.35	0.45
인구감소지역	4.61	0.87	0.22
전국	5.98	1.42	0.51

03. 외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취업의사: 전북특별자치도 사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학업단계 경험과 취업의사

(유치단계) 대학 결정 시 주로 주변 지인의 추천이나 인터넷·SNS 검색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대학의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최종 선택

(학업단계) 대학, 지자체,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중 한국 전통문화체험 행사 및 한국어 강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유학생이 많고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정착에도 도움이 됨

- 대부분 대학이 소재한 시·군에 거주하며, 주요 거주 형태는 학교 기숙사
-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터넷·SNS 검색과 지인을 통해 대학 소재 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
- 유학한 대학이나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인식

(대학 졸업 후 한국 및 지역 내 취업의사)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34.3%이며, 미래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3.4%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7.9%
- 한국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는 것은 자신의 출신국가 등 한국 외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인식
- 한국에서 취업할 회사 선택 시 임금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하기를 가장 희망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유학생 국내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인턴십 기회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한국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59%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항로짓모형) 미취업그룹을 참조그룹으로 하여 대학졸업 후 한국에 취업그룹, 미래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취업그룹, 세 가지로 구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대학졸업 후 한국에 취업할 의사) 출신국가, 한국어능력, 학위수준, 정규과정 이외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시간제 근로 경험, 유학한 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변인에서 유의미
- (미래에 기회가 될 경우 한국에 취업할 의사) 출신국가, 학위수준, 시간제 근로 경험, 거주기간, 유학한 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지역이 포용적이라고 느끼는 정도 변인에서 유의미

(이항로짓모형)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대학졸업 후 한국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 경우) 전공, 정규과정 이외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지역 거주기간, 유학한 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지역이 포용적이라고 느끼는 정도, 기숙사 거주 여부 변인에서 유의미
- (미래에 기회가 될 경우 한국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 경우) 출신국가, 한국어능력, 전공, 유학한 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변인에서 유의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내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거주지역 및 지역주민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

04.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방안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취·창업 연결 사다리 강화

(외국인 유학생 유형화를 통한 졸업 후 체류 경로 다양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자격은 비학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 등 다양한 학위수준을 포함하는 반면 졸업 후 체류 자격은 학위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형을 전문직업 교육형, 지역산업 연계형, 미래산업 선도형, 국가산업 육성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체류자격과 연계하는 방안 수립(박민정 외 2023)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산학프로그램 확대)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 중에도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한국 기업문화에 대한 적응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습득 기회를 기대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업종범위를 넓혀 다양한 분야의 산학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
- 광역형 비자사업, 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산학프로그램 발굴

(외국인 유학생 창업 지원) 해외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에 건져 유학생의 창업에 대해서는 대학, 지자체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창업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유학생 지역 내 정착 제고 방안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이해도 제고)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학업단계의 경험 중 계속 체류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 대학의 교과과정이나 지자체 및 외국인 지원단체의 지역 이해,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마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 설문조사 결과 유학한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이 포용적이라고 느낄수록 대학졸업 후 또는 미래에 기회가 될 경우 지역에 남아 취업할 의사가 높음

-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생과 지역 주민 간 교류 기회 제공
- 지역사회 탐방이나 지역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대만 타오위안시 사례, 한국인 가정과 유학생을 연결하는 전주대의 '호스트 패밀리' 프로그램 등이 사례

지역 외국인 유학생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패키지화

(외국인 유학생 관련 통계연계 및 성과조사 시스템 구축)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나 체류 실태조사와 외국인 근로자 데이터 및 조사가 분리되어 있어 유학생의 유치-학업-취-창업 단계별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

-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와 외국인 근로자 데이터 연계
- 지역 차원에서 지역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지역 일자리 수급계획하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정책 추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수급 상황 분석에 기반한 외국인 인력수요 산정 없이 지자체의 유학생정책을 추진하는 상황

- 지역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별, 직종별, 직능 수준별 외국인 인력 수요를 분석하고, 외국인 유학생 수요로 충당할 규모에 대해서 지역대학과 협조체계 마련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 정립) 외국인 유학생 지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학의 역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유학생이 학업단계에서 취업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주체가 공백

- 지자체가 구직을 희망하는 비자소지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학생 대상 지역 내 서비스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

참고문헌 박민정 외. 2023. 외국인 핵심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서연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ymseo@krihs.re.kr, 044-960-0215)
- 유희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044-960-0553)
- 김은란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erkim@krihs.re.kr, 044-960-0668)
-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shmin@krihs.re.kr, 044-960-0154)
- 이효란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문연구원(hyoran@krihs.re.kr, 044-960-0184)

※ 이 브리프는 “서연미, 유희연, 김은란, 민성희, 이효란. 2025.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

